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Care Sharing and Care Burden for Old Parent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金明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李允靜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Myung cha, kim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Yun Jeong, Lee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correlation between caregiver's burden and care sharing and then to contribute to improve relationship between old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The research samples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507 samples were finally selected. Th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the method of frequency, mean,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Care-sharing was made much in the case of high SES, the oldest daughter-in-law, living together with old parents and old parents' economic incapacity. Caregiver's burden was serious in the case of living with old parents, the oldest daughter-in-law and old parents' economic incapacity. And the correlation between care sharing and caregiver's burden was positive.

1. 문제의 제기

2000년에는 평균수명이 73세 정도에 이르게 되고,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0.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한국연감, 1993).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령기가 연장된 것을 의미하며 성인자녀에게는 노부모 부양의 기간이 장기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노인들은 일반적인 신체의 기능약화나 인지적 손상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인자녀는 그 어느시대보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편, 가족계획으로 자녀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부양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한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노부모 부양의 역할 수행을 주로 맡아왔던 여성도 가족의 경제적 부양 또는 자아실현등을 위해 사회진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간과 에너지의 부족으로 과거 처럼 가사일을 하기에는 더 이상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가치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노부모의 부양 기대와 성인자녀의 부양수행간에는 상호역할 기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은 그들 관계에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노부모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요구가 증가 될 수록 노부모 부양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형제는 다른 형제들의 동참을 원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도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식은 가지지만, 그들 또한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이나 직장에서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과 같은 다른 책임들을 생각할 때 노부모 부양은 희생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과의 노부모 부양분담은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주부양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노부모는 자신의 부양에 모든 성인자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므로 생활만족도는 증가할 수 있다(Lerner, Womersand Tierney, 1991).

즉, 노부모 부양에 관한 가치는 시대적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성인자녀들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이전의 성인세대가 인내했던 것보다 더 큰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하여 노부모와의 관계뿐 아니라 노부모 부양의 분담문제로 인하여 형제 관계에서도 심각한 불협화음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갈등은 성인자녀세대와 노부모세대 모두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부모와 성인자녀 양측의 생활을 강화시키고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을 완화 시킬 수 있는 가족지원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노부모 부양 분담과 부담감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의 부양분담정도와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노부모 부양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또한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 관계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부모 부양의 분담

성인자녀가 노부모 부양을 하게 될 때 자식된 도리를 다 하여야 한다는 느낌이 자녀의 부양태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Silig, Tomlinson와 Hickey(1991)는 노부모 부양의 의무감을 윤리적 명령, 감사의 빛 그리고 사랑과 우정이라는 3개의 관점에서 볼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명령이나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부양의 의무감을 부여하는 사랑과 우정의 표현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가계승계권을 부여받는다는 입장에서 재산을 전적으로 상속받았던 장남이 부모부양의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사회의 변화, 산업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노부모는 장남 이외에 차남과의 동거 또는 딸과 동거하며 부양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게 됐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고령자 독신세대도 상당수인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의 책임소재에 대하여 아들 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연구결과(경제기획원, 1988, 서전, 1992)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많이 남아 있어 장남위주의 부모부양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장남이 부모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는 의식은 약화되고 있다(우미경, 1988).

또한 노부모의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부모 부양을 주로 맡고 있는 자녀는 다른 형제들도 적극적으로 부양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자기의 상황을 합법화시키려 하며, 특히, 그들 노부모의 의존도와 요구가 계속 증가될 때는 적극적인 참여를 회피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부모의 부양을 주로 맡고 있는 주부양자인 장남부부는 다른 형제들을 비난하기 쉽다. 그러나 도덕적 제약이나 그들의 계속적인 상호 의존성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난을 표현하기가 쉽지않지만(Lerner, Somers and Tierney, 1991) 노부모의 의존도가 계속 증가될 때는 형제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Brody 와 그의 동료들(1985)에 따르면 형제간의 부모부양의 책임으로 인한 다툼은 부모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양자의 부담을 고조시킨다고 하였으며, 또한 Keane-Hagerty와 Farran의 연구에서도 배우자나 부모를 부양하는 부양자의 부담에 관하여 조사했는데 이들 중 42%가 부양을 함께 수행하지 않는 다른 가족원들을 향해 어떤 분노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보고했다(Strawbridge and Wallhagen, 1991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노부모의 부양에 형제들이 적극 동참하는 것은 주부양자의 딜레마에 해결책을 제공하고,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주부양자 역할을 돕는 다른 형제의 보조부양자 역할은 노부모가 받을 수 있는 부양의 양이나 형태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노부모의 욕구를 좀 더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기에 형제들의 부양참여는 더욱 더 중요하다.

보조부양자는 주부양자가 더 이상 부양을 할수 없게 될 경우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조부양자는 힘이 덜 드는 일로 정서적인 부양, 쇼핑, 교통편 등의 도움을 주지만 보조부양자의 보조행동

은 주부양자와 유사한 범위의 광범위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주부양자의 도움이 부족한 부분에서 보조부양자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역시 주부양자에 비해 보조부양자가 현저히 부양의 양이 적다(Tennstedt, Mckinlay and Sullivan, 1989)

2. 부양부담감

1)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에 관한 연구

부담의 정의는 과중함이나 당황됨의 감정을 갖는 정서적인 회생에서부터 일상적인 일과의 흐트러짐과 같은 부양자의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특별한 변화에 이르기까지를 일컫는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역할 긴장 그리고 육체적 건강을 약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부담의 개념은 단일화된 개념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우며, 우울감, 스트레스, 긴장, 갈등,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건강의 약화와 같은 폭 넓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Porlshock, Deimling, 1984).

부양은 부담감과 관련지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특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손상과 가족의 긴장 그리고 다른 역할에 따른 의무감으로 인한 어려움과 관련되어 많은 연구가 있었다(Hinrichsen, Hernandez and Pollack, 1992).

많은 연구에서 부양의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을 역할의 과중함 으로 보고했으며(Sheehan & Nutall, 1988). 특히 여성이 주부양자로서 노부모 부양을 맡기 쉬워 과중한 역할의 요구를 받는다(Noelker & Poulshock, 1987). 이러한 노부모 부양의 과중한 역할요구는 부양자에게 무능력함을 깨닫게 할 수도 있으며, 더욱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노부모 부양은 계속적인 부양의 요구로 부양자의 물질적, 정신적 자원이 고갈되어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때이다(George & Gwyther, 1984). 그리고 노부모 부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재정상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분노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Scharlach, 1987).

특히 노부모 부양의 역할은 가족원 모두에게 골고루 분담되지 않고 주부양자인 장남부부가 대부분의 부양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더 큰 부담감을 보고하고 있다(Hoyert & Seltzer, 1992).

그리고, 노인의 의존성에 대한 부양자의 태도는 실제 부양상황의 어려움보다 더 밀접하게 부양의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될 수 있다(Sheehan & Nuttall, 1988). 특히, Litvin(1992)은 성인자녀가 노부모의 반응에 대해 자신을 조정하려드느 것이라는 오해를 할 때와 부양을 받는 노부모가 암암리에 혹은 공공연히 외로움을 불평할 때 다른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보다 화가 난다는 보고를 하였다. 또한 Handly(1986)는 노부모에 대한 비난, 적의, 지나친 정서적 관여같은 감정표현이 많은 가족원들은 감정표현이 적은 가족원들보다도 노부모 부양에 대하여 훨씬 많은 심리적 갈등이 있다고 했다. 노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신숙(1994)의 연구에서는 애정적 유대와 규범적 유대가 낮고 기능적 유대가 높을 수록 부양 스트레스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2) 노부모 부양에 따른 객관적 부담감과 주관적 부담감

부담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져 왔으며 또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측정되어왔다. 특히 Platt & Hirsch에 의해 부양자의 시간, 금전, 건강, 사생활 등의 부담정도(객관적 부담)와 노부모 부양에 대한 느낌이나 태도, 감정(주관적 부담)을 분리하여 그 개념을 수정하였다(Montgomery, Gonyea and Hooyman, 1985에서 재인용).

① 객관적 부담감

부양의 부담감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노부모 부양을 큰 희생과 관련지어 설명해 왔는데 이들 연구는 부양자는 시간과 자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부담감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해 왔다(Sheehan & Nuttall, 1988). 특히, 부모의 건강이 나쁠 경우에는 건강이 나쁜 노인뿐 아니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적절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은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사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기 쉬우며, (Rosenthal, Sulman, Marshall, 1993) 또한 이러한 경험은 가족관계에 긴장감이나 부양자의 건강을 나쁘게 한다(Brody, 1985; Sheehan & Nuttall, 1988; Rosenthal, Sulman, Marshall, 1993). 그리고 부양자가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 지출이 증가하는 생활주기에 있다면 노부모 부양은 더욱 심한 경제적 압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Skolnick & Skolnick, 1977) 즉, 노부모 부양은 개인생활, 사회생활, 직업, 휴가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부양자의 건강 악화시키며, 나아가 부양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Mui, 1992).

② 주관적 부담감

노부모의 부양요구로인해 성인자녀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경험하며(Stroller & Pugliesi, 1989), 특히, 부양자의 능력 이상의 요구를 받을 때 성인자녀들은 노부모 부양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Selig, Tomlinson, Hickey, 1991).

그러나 노부모가 성인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으면서 동시에 성인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집안일, 아이 돌보기 등의 도움을 준다면 이런 부정적인 노부모 부양의 결과는 감소할 수 있다. 즉, 노부모의 성인자녀의 부양에 대한 답례 및 보상의 능력이 주부양자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유의하게 작용한다(Dwyer & Miller, 1990).

한편, 소수의 연구들은 노부모 부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보상에 관해 언급해 왔는데, 노부모를 부양하는 딸은 만족감, 어떤 의미로움, 그리고 노부모 부양에 수반하는 흐뭇한 느낌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양의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했다(Walker, Allen, 1991).

3.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고찰¹⁾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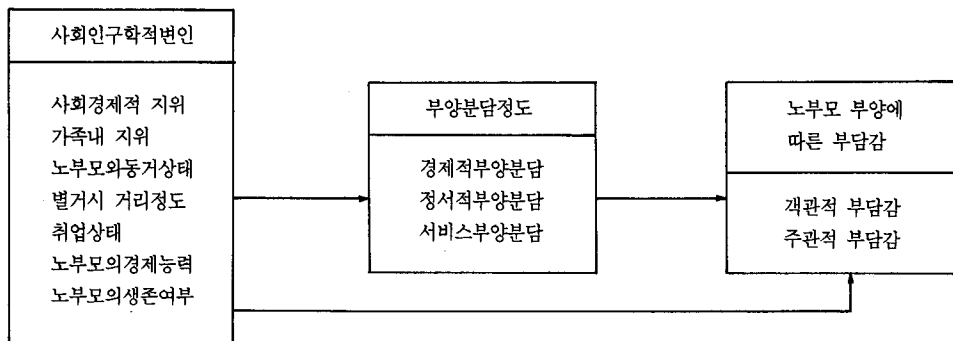
[연구문제 3]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5]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2. 연구모형

위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3. 용어정의

1) 부양분담정도

① 경제적 부양분담정도: 노부모의 생활비, 의료비 또는 잡비의 보조등 경제적 부양의 측면에서 형제들의 부양수행정도와 비교하여 본인이 맡는 부양의 역할 정도를 말한다.

할 정도를 말한다.

② 정서적 부양분담정도: 노부모의 외로움을 달래고 마음의 교류를 하는 정서적인 부양의 측면에서 형제들의 부양수행정도와 비교하여 본인이 맡는 부양의 역할 정도를 말한다.

③ 서비스적 부양분담정도: 노부모의 질병시 간호, 세탁과 청소, 식사준비, 교통편등의 서비스적 부양 측면에서 형제들의 부양수행정도와 비교하여 본인이 맡는 부양의 역할 정도를 말한다.

2) 부양 부담감

① 객관적 부담감: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사생활의 보장, 건강 금전적, 시간적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② 주관적 부담감: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정서적인 반응이나 태도, 감정의 부정적인 정도를 말한다.

4. 조사도구

1) 부양분담정도의 척도

부양분담정도는 구은옥(1989)와 송효석(1989)의 부양행동에 관한 질문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1문항이 제외되어 경제적 측면 4문항, 정서적

1) 이윤정(1994),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측면 4문항, 서비스적 측면에 4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신뢰도는 전체 α 값 0.85로 나타났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방식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부양부담정도가 많은것을 의미한다.

2) 부양부담감의 척도

부양 부담감에 관한 문항은 Montgomery와 Gonyea 그리고 Hooyman(1991)이 부양행동에 따른 부담을 측정하기 위하여 객관적 부담과 주관적 부담으로 나누어 측정한 질문지를 예비조사후 요인분석에 의해 4문항을 제외하고 객관적 부담감 8문항, 주관적 부담감 10문항으로 총12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신뢰도는 전체 α 값 0.91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부담감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부모가 계신 30대와 40대의 기혼여성으로 남구, 서구, 사하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100명의 예비조사 실시 후, 1994년 8월29일에서 9월5일 사이에 본조사를 실시하여 총 800부의 질문지중 604부를 회수하여 507부만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 작성을 위하여 신뢰도 조사와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연구문제 검증에 위해 일원분산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 중회귀분석 그리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모두 SAS Program Package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독립변수	구분	빈도 (%)
연령	30대	211 (41.6)
	40대	296 (58.4)
	계	507 (100)
사회,경제적 지위	상	100 (19.7)
	중	239 (47.2)
	하	168 (33.1)
	계	507 (100)
가족내 지위	만 며느리	214 (42.2)
	둘째이하 며느리	184 (36.3)
	딸	109 (21.5)
	계	507 (100)
동거여부	동거	163 (32.1)
	다른 자녀와 동거	181 (35.8)
	노부모만 따로 동거	163 (32.1)
	계	507 (100)
별거시 거리정도	걸어서 30분 이내	80 (23.3)
	차로 1시간 이내	102 (29.7)
	다른 지방	162 (47.1)
	계	507 (100)
취업여부	전업주부	218 (43.0)
	시간이 자유로운 일	139 (27.4)
	8시간 이상 근무직	150 (29.6)
	계	507 (100)
노부모 생존여부	부모 모두 생존	178 (35.1)
	모만 생존	294 (58.0)
	부만 생존	35 (6.9)
	계	507 (100)
노부모 경제적 능력	자식을 충분히 도움	53 (10.5)
	부모 스스로 생계	157 (31.0)
	자식의 원조 필요	120 (23.7)
	자식에게 전적 의존	177 (34.9)
	계	507 (100)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

[연구문제 1]을 규명하기 위하여 부양분담의 3가지 하위영역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1) 경제적 부양분담정도는 사회경제적지위($p < .05$)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될 수록 부모에게도 경제적 지원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며느리가 차남이하의 며느리나 딸보다 경제적 부양분담정도가 많았다($p < .001$). 또한 노부모와 동거($p < .001$)하는 자녀가 가장 많이 경제적 부양을 분담하고 있으며, 노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많은 경제적 부양분담정도를 보였다.

2) 정서적 부양분담정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상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부양분담정도가 많은 것($p < .001$)으로 나타나 생계유지에 심리적 여유 수준이 높은 성인자녀가 부모의 심리도 보살피기가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내 지위($p < .001$)에 따라서는 역시 딸이 만며느리와 함께 정서적으로 많은 부양분담을 하고 있어, 딸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3) 서비스 부양분담정도는 만며느리($p < .001$)가 많은 부양분담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동거($p < .001$)를 하는 경우에 서비스 부양분담정도가 많았다. 그리고 부양을 하는 부모가 아버지 혼자인 경우($p < .01$)에 가장 부양분담정도가 많아 어머니가 하던 가사일 등이 성인자녀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전적인 의지($p < .01$)를 할 때 가장 많이 부양분담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송애(199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노부모의 부양은 만며느리의 역할이라는 전통적 부양의식이 아직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정서적 부양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여유나 심리적 친밀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만며느리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부양분담정도는 가장 많아진다고 볼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부담감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부양에 따른 부담감의 2가지 하위영역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있다.

1) 객관적 부담감은 만며느리인 경우에 가장 높았으며, 딸인 경우에는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부담감($p < .001$)을 보여 만며느리의 부양분담정도가 가장 많았던 만큼 부양으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동거여부($p < .001$)에 따라서는 부모와 동거할 경우와 아버지만 생존해 있는 경우에 높은 부담감을 보였는데 이는 식사준비나 빨래등 서비스 부양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거의 경우는 외출이나 여행의 불편함 또는 사생활의 침해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2) 주관적 부담감은 만며느리인 경우 가장 높았으며, 딸인 경우는 주관적 부담감이 유의하게 낮았다($p < .001$). 특히 만며느리는 부양에 대한 당연한 기대로 인하여 부양행동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 부양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 주관적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p < .001$) 별거시에는 30분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사는 경우 주관적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을 수록 주관적 부담감은 줄어들었다($p < .001$). 즉,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중년기의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는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른 연구결과(김송애, 1990:도주원, 1993:이신숙, 1994:최동희, 1991)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부모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양분담 정도

변 인		전체			경제 분담			정서 분담			서비스분담	
		평균	DUN	F값	평균	DUN	F값	평균	DUN	F값	평균	F값
사회경제 적 지위	상	3.06	A	***	3.24	A	*	3.19	A	***	2.75	
	중	2.82	B	6.07	3.02	AB	3.33	2.87	B	10.38	2.57	1.38
	하	2.74	B		2.92	B		2.73	B		2.56	
가족내 지 위	맡 며느리	3.09	A	***	3.37	A	***	3.06	A	***	2.84	A ***
	그외 며느리	2.61	B	23.91	2.80	B	24.38	2.67	B	11.54	2.36	B 13.27
	딸	2.73	B		2.75	B		2.91	A		2.55	B
동 거 여 부	동거	3.32	A	***	3.65	A	***	3.17	A	***	3.14	A ***
	노부모만	2.67	B	62.64	2.92	B	65.54	2.75	B	14.68	2.35	B 45.00
	다른 자녀와	2.56	B		2.57	C		2.76	B		2.35	B
취 업 여 부	전업주부	2.86			2.93			3.00	A	**	2.66	A *
	자유직	2.90		1.61	3.11		2.14	2.92	A	5.96	2.68	A 3.04
	일반직	2.75			3.11			2.71	B		2.46	B
노부모의 생존여부	부만 생존	3.12	A	*	3.45	A	*	2.96			2.94	A **
	모만 생존	2.87	B	4.16	3.04	B	4.24	2.91		0.41	2.65	AB 4.83
	부모모두생존	2.74	B		2.92	B		2.85			2.46	B
노부모의 경제능력	전적 의존	3.03	A	***	3.32	A	***	2.96	A		2.81	A **
	원조필요	2.81	B	7.04	3.03	B	10.57	2.81	A	1.65	2.57	AB 5.14
	스스로 생계	2.66	B		2.77	B		2.83	A		2.40	B
	여유충분	2.82	B		2.82	B		3.04	A		2.61	AB

* P < .05 ** P < .01 *** P < .001

와 동거하거나 가까이 사는 맏며느리가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고부갈등도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부양분담정도와 부담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부양분담정도는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과 정적인 상관관계($r=0.333$)가 있었다. 따라서 형제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부양분담이 많다고 인지될 때 성인자녀는 높은 부양부담감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

다. 특히 부양분담정도는 부양자의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사생활이나 건강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객관적 부담감과 상관관계($r=0.367$)가 높게 나타나 부양자의 부양에 대한 심리적인 태도보다는 자원이나 사생활등과 더 큰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전체부양분담정도와 전체부양부담감사이의 높은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부양분담정도는 주관적 부담감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정이 근본이 되는 부양은 부양자의 심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변 인		전체 부양 부담감			객관적 부담감			주관적 부담감		
		평균	DUN	F값	평균	DUN	F값	평균	DUN	F값
가족내 지 위	맡머느리	2.86	A	***	2.86	A	***	2.86	A	***
	둘째이하 며느리	2.44	B	76.2	2.36	B	39.1	2.50	B	73.9
	딸	1.86	C		1.99	C		1.76	C	
동 거 여 부	동거	2.96	A	***	3.11	A	***	2.84	A	***
	노부모만	2.33	B	52.36	2.23	B	66.06	2.42	B	22.57
	다른 자녀와	2.21	B		2.17	B		2.25	B	
별거시 거리정도	걸어서 30분	2.52	A	***	2.48	A	**	2.55	A	*
	차로 1시간	2.19	B	7.40	2.11	B	6.98	2.27	B	4.24
	다른 지방	2.18	B		2.11	B		2.24	B	
노부모의 생존여부	부만생존	2.67			2.89	A	**	2.50		
	모만 생존	2.52		1.91	2.52	B	4.89	2.52		0.26
	부모모두 생존	2.42			2.36	B		2.46		
노부모의 경제능력	전적 의존	2.72	A	***	2.72	A	***	2.71	A	***
	원조필요	2.52	AB	10.79	2.48	AB	6.56	2.56	AB	10.95
	스스로 생계	2.33	BC		2.33	B		2.36	B	
	여유충분	2.16	C		2.30	B		2.02	C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부양분담정도와 부담감의 상관관계

	전체 부양 부담감	객관적 부담감	주관적 부담감
경제 분담	0.340 ***	0.320 ***	0.278 ***
정서 분담	0.119 ***	0.182 ***	0.136
서비스 분담	0.328 ***	0.374 ***	0.211 ***
전 체	0.333 ***	0.367 ***	0.226 ***

*** P < .001

4.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문제 4]의 부양분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1) 경제적 부양분담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동거여부($\beta=.379$)로, 부모와 동거를 하는 경우 경제적 부양분담정도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가족내의 지위($\beta=.192$)와 부모의 경제적 능력변인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경제적 부양분담정도에 영향력을 미쳤다.

2) 정서적 부양분담정도는 사회경제적 지위($\beta=.193$)에 따라 가장 큰 영향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자녀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이 부모와의 관계에 자원과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가족내 지위에 따라서 그리고 별거시 거리와 직업유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적 부양분담은 동거여부에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해서 동거자녀와 노부모가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서비스 부양분담정도는 동거여부($\beta=.304$)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이었으며, 가족내 지위에 따라

서도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부양분담정도는 동거여부($\beta=.317$)가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으며, 다음은 가족내 지위($\beta=.165$)와 사회경제적 지위($\beta=.146$)변인이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beta=-.103$) 변인의 순으로 전체 부양분담정도에 영향력을 보였다. 그리고 이들 변인은 부양분담정도에 대해 25%의 설명력을 보였다.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큰 영향력은 가족내 지위($\beta=.206$)와 동거여부($\beta=.176$)가 객관적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앞에서 서비스 부양분담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가족내 지위와 동거여부였던 것을 생각해 볼때 결국 노부모와 동거를 하는 맏며느리가 가장 객관적 부담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노부모 부양분담정도에 미치는 영향

	종 속 변 인			
	부양분담정도 B(β)	부 양 분 담 정 도 하 위 요 인		
		경제분담도B(β)	정서분담도B(β)	서비스분담B(β)
	***	**	***	
사회경제지위	0.044(0.146)	0.052(0.129)	.064(0.193)	.016(0.042)
	***	***	*	*
가족내 지위	0.249(0.165)	0.385(0.192)	.178(0.107)	.185(0.096)
	***	***		***
동거여부	0.506(0.317)	0.803(0.379)	.097(0.055)	.617(0.304)
			*	
별거시 거리	-0.021(-0.043)	0.048(0.076)	-0.083(-0.161)	-0.026(-0.044)
		*	*	
직업유무	-0.030(-0.020)	0.172(0.086)	-0.144(-0.087)	-0.118(-0.061)
	*	***		
부모경제능력	-0.075(-0.103)	-0.167(-0.172)	-0.000(-0.000)	-0.059(-0.063)
상수	2.487	2.510	2.670	2.281
R2	0.252	0.262	0.134	0.175
F값	20.98***	22.11***	9.61***	13.20***

*** P < .001

5.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문제 5]의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6〉에 나타나있다.

1) 객관적 부담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낸 변인은 서비스적 부양분담정도($\beta=.218$)로, 식사준비나 빨래, 청소, 병간호등의 부양수행이 성인자녀의 시간이나 자원 건강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2) 주관적 부담감은 가족내 지위($\beta=.297$)에 따른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 맏며느리가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beta=-.209$)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금전은 가족에게 아주 한정된 자원으로 다른 용도와 그 필요성을 생각할때 그리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부양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할때 성인자녀에게는 희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서적 부양분담정도는($\beta=-.170$)는 주관적 부담감에 부적인 영향력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양분담정도변인이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종 속 변 인		
	부 담 감 B(β)	부 담 감 하 위 요 인	
		객관부담감B(β)	주관부담감B(β)
사회경제지위	-0.013(-0.042) ***	-0.023(-0.060) ***	-0.006(-0.016) ***
가족내 지위	0.466(0.291)	0.391(0.206) **	0.525(0.297)
동거여부	0.120(0.071) **	0.355(0.176) *	0.068(0.036) **
별거시 거리	-0.093(-0.186)	-0.089(-0.150)	-0.096(-0.173) **
직업유무	-0.077(-0.048)	0.064(0.033)	-0.190(-0.107)
부모생존상태	-0.043(-0.028) ***	0.007(0.003) *	-0.033(-0.019) ***
부모경제능력	-0.133(-0.172) *	-0.076(-0.082)	-0.179(-0.209) **
경제분담정도	0.078(0.098) **	0.024(0.026)	0.121(0.138) ***
정서분담정도	-0.123(-0.127) **	-0.051(-0.044) ***	-0.181(-0.170)
서비스분담정도	0.146(0.175)	0.216(0.218)	0.089(0.097)
상수	2.939	2.497	3.292
R2	0.333	0.310	0.254
F값	22.51***	20.18***	15.30***

***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부양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내 지위($\beta=.291$), 별거시 거리정도($\beta=-.186$), 서비스부양분담정도($\beta=.175$), 노부모의 경제적 능력($\beta=-.172$), 정서적 부양분담정도($\beta=-.127$), 경제적 부양분담정도($\beta=.09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노부모 부양의 부담감에 대하여 33%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장남위주의 노부모 부양의 식이 약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은 결국 만며느리인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양분담정도와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부양분담정도와 부양부담감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봄으로써, 세대상호관계와 형제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부양분담정도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양분담정도가 많았으며 만며느리인 경우와 노부모와 동거를 하는 경우 그리고 노부

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양분담을 하였다. 정서적 부양분담정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상이상의 집단일때, 딸이나 맏며느리일때 그리고 부모와 동거를 하는 경우 많았다. 서비스적 부양분담정도는 맏며느리인 경우와 동거를 하는 경우에 부양분담정도가 많았다.

둘째, 객관적 부담감은 맏며느리인 경우에 가장 높았으며 딸의 경우는 가장 낮았다. 그리고 동거를 하는 경우와 별거시에는 걸어서 30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사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만을 부양하는 경우에 객관적 부담감이 높았다. 그리고 노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성인자녀는 객관적 부담감이 높았다. 주관적 부담감은 맏며느리인 경우와 노부모와 동거를 하는 경우에 높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많을 수록 성인자녀는 주관적 부담감이 낮았다.

셋째, 부양분담정도와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정서적 부양분담정도만은 노부모 부양 부담감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부양분담정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동거여부, 가족내 지위, 사회경제적지위, 부모의 경제적 능력순으로 나타났으며,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내지위, 별거시 거리정도, 서비스부양분담정도, 노부모의 경제적 능력, 정서적 부양분담정도, 경제적 부양분담정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제반척도의 표준화 문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중회귀분석에서 딸과 차남이하 며느리를 분석의 용이함을 위해 한집단으로 묶었던 점, 그리고 심리적 측면을 설명하는 주관적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중에 심리적인 변인이나 성격적인 변인이 제외되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양분담정도와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의 상관관계에서 주관적 부담감은 객관적 부담감과 상관관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부담감은 부

양자의 느낌이나 태도와 관련된 것이므로 부양자의 성격이나 가족가치관과 같은 변인과 함께 노부모 부양의 부담감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노부모의 의존도가 증가할때 주부양자 형제와 그 외형제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분담하는 노부모 부양의 형태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서전(1991), "중년기 가족의 노부모 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2) 이신숙(1994),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모와의 유대를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3) Ada C. Mui(1992), "Caregiver Strain Among Black and White Daughter Caregivers: A role Theory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2, 2.
- 4) Andrew E. Scharlach(1987), "Role Strain in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in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27, 5.
- 5) Brody E.(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
- 6) Carolyn J. Rosenthal, Joanne Sulman, and Victor W. Marshall (1993), "Depressive symptoms in Family Caregivers of Long-stay Patients", *The Gerontologist*, 33, 2.
- 7) Gregory A. Hinrichsen, Nancy A. Hernandez, and Simcha Pollack (1992), "Difficulties and Rewards in Family Care of the depressed Elder Adult", *The Gerontologist* 32, 4.
- 8) Melvin J. Ierner, Darryl G. Somers, David Teid, David Chiriboga, and Mary Tierney(1991), "Adult Children as Caregivers: Egocentric Biases in Judgments of sibling Contributions" *The Gerontologist*, Vol. 31, No.6.
- 9) Montgomery R.J.V., Gonyea J.G., and Hooyman N.R.(1985), "Caregiving and the Experience of

- Subjective and Objective Burden”, *Family Relations*, Jan.
- 10) Nancy W. Sheehan & Paul Nuttall(1988), “Conflict, Emotion, and Personal Strain”, *Family Relations*.
- 11) Sandra J. Litvin(1992), “status Transitions and Future Outlook as diterminants If Conflict;the Caregiver’s and Care Receiver’s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2, 1.
- 12) Sharon I. Tennstedt, John B. Mckinlay, and Lesa M. Sullivan (1989), “Informal Care for Frail Elders:The Role If Secondary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29, 5.
- 13) Stroller E.P. & Pugliesi, K.L.(1989), “Competin responsibilities or supportive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44.
- 14) Suzanne Selig, Tom Tomlinson, and Tom Hickey (1991), “Ethical dimensions of Intergenerational Reciprocity: Impoications for Practice”, *The Gerontologist*, 31, 5.
- 15) William J. Strawbridge and Margaret i. Wallhager (1991), “Impact of family Conflict on Adult Child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1, 6.